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 무료 DB : KCI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 경 은[†]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교제 중인 여성 성소수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자료를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27개의 소주제와 8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요 대주제로는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한 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을 다룬 국내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그들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랑을 구성하고 유지하며, 관계를 통해 자아를 성숙시켜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의 연계성을 통해 학술적·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또한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어 : 여성, 성소수자, 사랑, 질적 연구, 현상학

*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박경은, 세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학술관 310호

Tel: 043-649-7317, E-mail: p4a7r4k3@semyung.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은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규범과 구조 속에서 독특한 정체성과 관계 양식을 통해 형성된다(Rich, 2003). 이러한 관계 형성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과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다(Puckett et al., 2015).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강한 가족주의, 결혼 중심주의, 이성애 규범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김하영, 2018; 장미래 & 송현주, 2021),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여성 성소수자가 사랑을 드러내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2025년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 태도는 관계의 친밀성과 심리적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인(23%)이나 배우자(20%)의 커밍아웃을 수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지인이나 직장 동료 등 비교적 심리적 거리가 있는 관계보다도 낮다. 반면, 자녀(35%)나 부모(34%) 등 가족에 대한 수용은 비혈연관계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가족주의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여 수용 태도가 제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8~29세 여성의 경우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에 이르고, 전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커밍아웃 수용 태도가 더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반 이하의 수용률을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사랑을 드러내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 친밀한 관계 내의 보수적 규범, 사

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들은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퀴어(lesbian, bisexual, queer; 이하 LBQ) 여성의 사랑과 관계 형성이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정체성을 협상하고 저항하는 정치적 실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Witcomb와 Cooper(2024)는 LBQ 여성들이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희롱, 정체성 노출에 대한 두려움, 커뮤니티 내 배제 등의 경험이 이들의 관계 표현을 억제하도록 만들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조정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Glynn 등(2023) 또한 여성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성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희망 수준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혀, 사랑과 정체성 드러내기가 단지 관계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체성 협상의 과정은 단지 개인의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규범과 권력의 구도 속에서 수행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 성소수자는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사회적 소수자 지위를 동시에 지니며, 이로 인해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적 차별(Blustein et al., 2019)을 경험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경제적 지위에 놓이기 쉬우며(Stamarski & Son Hing, 2015), 성차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중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남성 성소수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수자 스트레스에 노출된다(Scheer et al., 2022; 장서연 외, 2014). 윤아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 여성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

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여성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는 비가시적이며 은지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적 배제는 성소수자 문화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공동체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실제로 Badgett(2013)는 동성애자, 특히 레즈비언 커플의 빈곤율이 이성애자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은 곧 직업적 정체성과 성소수자 정체성 사이의 긴장을 야기한다. Vargas 등(2021)은 여성 성소수자가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관련한 조롱이나 비난을 경험할 경우, 정체성을 더욱 숨기게 되거나 사회적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이 심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House(2004) 역시 정체성은 폐가 생존 전략으로 작동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여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소수자 스트레스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이호림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의 우울 수준은 이성애자에 비해 약 6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영향을 반영한다. 또한 채원정과 강숙정(2025)은 초기 성인기 여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흡연 및 문제 음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자 스트레스가 단기 정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음주 및 흡연(Greene et al., 2021), 약물남용 및 정신 질환(Livingston et al., 2023)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 성소수자의 경우, 구조적 불평등과 중첩된 차별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며, 이는 물질남용이나 과도한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ewis, 2016). 이와 관련하여, 김가영과 김영근(2024)은 여성 성소수자가 억압적인 사회적 환경과 반복되는 차별 속에서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를 일시적인 탈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소수자 스트레스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관계 내 안정성과 친밀감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집중해 왔고, 사랑과 관계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성소수자의 내면화된 동성애 혐오(internalized homophobia)는 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는 이성애 중심적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자기수용의 어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며(Nadal, 2013), 이성애 우월주의(heteronormative supremacy)에 의한 비정상화 경험(여기동 & 이미형, 2006) 및 낮은 경험 속에서 이성애 관계 맺기의 내적 소망을 형성할 수 있다(진소연 외, 2013). 이는 사랑 관계의 친밀감과 안정성에도 파급된다. 장미래와 송현주(2021)는 여성 성소수자가 무조건적 자기수용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고, Puckett 등(2015)과 Totenhage 등(2018)은 내면화된 낙인이 의사소통, 감정표현, 갈등 대처 등 관계 기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랑 경험 속에서 정체성 관리와 자기수용 문제는 단기적 관계 형성뿐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친밀감의 표현, 파트너의 공개 여부,

공동체 내 소속감의 유지 등 관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체성 협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존재 가능성(legibility)과 인정 가능성(legitimacy)의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협상의 맥락은 곧 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LBQ 여성의 관계 경험은 정체성 교섭, 사회적 낙인에 대한 저항 전략, 그리고 관계의 정치성과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사회적 낙인,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비수용, 의료와 제도 시스템에서의 배제는 LBQ 여성이 사랑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structural barriers)으로 작용한다(Peitzmeier et al., 2020). 이러한 제도적 배제는 단지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 형성과 관계의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소수자들이 의료 시스템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경험은 Irwin(2007)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제도적 신뢰 상실과 복지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장애경 외(2023)는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이 제약적인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심리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이 관계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관계의 지속과 드러냄, 안전과 수용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조율하는 지속적인 실천이 된다. 여성 성소수자들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정

체성이 드러날 경우 받을 수 있는 낙인과 배제를 고려하여 스스로를 조율하는 전략을 사용한다(Balsam et al., 2005). 예컨대, 성소수자들은 사랑 경험과 관계 형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 판단하고 조절하는 상황적 가시화(strategic visibility)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차별과 낙인을 회피하면서도 관계의 진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경은(2021)의 연구는 성인기 성소수자들이 사랑 경험 속에서 정체성의 드러냄과 관계의 안정 사이를 조율하며 삶의 적응 과정을 구성해 나간다는 점을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에 한정된 결과가 아니므로, 해당 집단의 경험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Witcomb와 Cooper(2024)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애정 표현을 억제하고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방식’을 택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협상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Schmitz와 Tyler(2018) 역시 성소수자 청년들의 정체성 관리 전략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이는 이들의 정신적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19세에서 26세 사이의 성소수자 청년 4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참가자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드러내며 다양한 도전에 적응하는 방식을 탐색하였다. 특히 정체성 은폐는 사회적 맥락에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남미자 외(2023)의 연구에서도 여성 성소수자 학생이 ‘생존전략

으로써의 감추기'를 활용하며, 동시에 '있어야 하지만 없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 성소수자들이 활용하는 상황적 가시화(strategic visibility) 전략이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는 곧 여성 성소수자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감정 교류를 넘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조율해야 하는 사회적 실천이자, 구조적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체성 관리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가시화 전략은 때로는 관계의 깊이를 얇게 만들거나,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공간 안에서만 애정을 표현하려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Witcomb & Cooper, 2024). 이러한 전략은 성소수자 개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방식인 동시에, 연인 간의 관계적 맥락 안에서도 애정 표현의 방식과 범위에 새로운 역동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체성 관리 전략이 연인 간의 친밀감 형성 및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성소수자들이 반복적으로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감추려는 시도는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Glynn et al., 2023; Huang & Chan, 2022). 이처럼 성소수자의 정체성 은폐 전략은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시에,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규범과 지지체계로부터의 단절

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며(Pachankis et al., 2020), 이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 성소수자 커플의 관계 유지 및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Kurdek(2005)의 연구는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이 이성애자 기혼 커플보다 관계 안정성은 낮지만, 관계의 질은 유사하게 나타나며, 가사 노동을 더 공정하게 분담하고, 갈등을 보다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유사한 수준의 관계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는 적은 지지를 받지만, 친구들로부터는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레즈비언 커플은 게이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 정서적 소통, 갈등 해결에서 더 높은 질적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레즈비언 커플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 만족도는 Sommantico 외(202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레즈비언(48%)과 게이 남성(52%)으로 구성된, 최소 6개월 이상 커플 관계를 유지 중인 총 298명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 자기 분화 수준, 그리고 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애착 불안정성과 자기 분화 수준이 관계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 연구는 동성 커플의 관계 만족에 기여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관계 유지에 있어 애착 안정성과 자기분화 능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 커플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계 만족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 유지에 있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Scott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간 동성 커플은 남성 간 동성 커플이나 이

성 커플보다 이별 또는 이혼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65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표본의 약 2/3가 외도, 지나친 다툼, 약물 남용,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관계가 멀어짐, 성격 차이, 합의된 비독점적 관계(consensual nonmonogamy)를 유지하는 데 따른 어려움, 거짓말과 배신 등도 참가자들의 이별 서술에서 중요한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내·외적 요인이 관계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레즈비언 커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계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대해 Rostosky와 Riggle(2017)은 66편의 실증연구를 종합 검토하여, 동성 커플 관계의 강점으로는 개인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긍정적 감정과 상호작용,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상의 세 가지 관계 과정을 들었으며, 지각된 친밀감, 헌신, 평등주의, 커밍아웃이라는 네 가지 긍정적 관계 특성이 친밀한 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동성 커플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외부 요인 속에서도 고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 내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식과 구조적 제약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한편, 여성 동성 커플의 관계는 여전히 이성애 중심적 규범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곤 한다. 특히 일부 맥락에서는 여성 간 관계가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로 구분되거나,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대상화되는 방식이 지적되었다. 실레로 Hequembourg와 Brallier(2009)의 포커

스 그룹 연구에서는 여성 간 동성 관계가 이성애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화의 형태로 왜곡된다는 인식이 드러났으며, 남성은 문란하고 일탈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성소수자의 삶과 사랑을 단순히 성적 측면으로 축소하는 소외화 현상(exoticization)을 강화하며(Nadal, 2013), 결국 성소수자 개인의 커밍아웃 여부나 관계 형성 방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성 성소수자의 삶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체성 형성과 발달, 커밍아웃 과정, 소수자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Scheer et al., 2022; 장서연 외, 2014; 이호림 외, 2017).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성소수자가 겪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심각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정작 그들의 사랑 경험 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맥락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을 넘어, 정체성의 드러냄과 은폐, 사회적 수용과 배제,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과 긴밀하게 얽힌 핵심적 경험이다. 따라서 “왜 사랑 경험인가?”라는 물음은 여성 성소수자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제기되어야 한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성소수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관계와 친밀성의 의미를 조명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여성 성소수자의 친밀한 관계가 직면한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드러내어 정책적·실천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여전히 정체성, 커밍아웃, 소수자 스트레스 등 개별 요인에 집중해 있으며,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친밀감, 관계 유지 전략, 사랑의 심리·사회적 의미 구성에 대한 질적 탐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성소

수자가 구조적 제약과 낙인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구성·유지하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여성 성소수자는 어떤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 사랑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주로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에 연구 목적 및 참여 조건, 인터뷰 방식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총 15명의 지원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연구 참여 동의서 전달과 인터뷰 일정 조율 과정에서 4명의 지원자는 연락이 두절되어 참여가 무산되었고, 1명은 연구의 주요 선정 기준(성적 지향 및 연애 경험 등)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0명의 참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들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심층 탐색을 위해 성적 지향이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정체화되어 있고, 동성과의 연애 경험을 지속해 온 5명의 참여자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참여자 선정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심층적 탐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특성에 기반하며, 선정된 참여자들은

모두 1년 이상의 연애 경험을 가진 여성 성소수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20~40대의 여성 성소수자로, 연령은 27세에서 43세 사이로 다양하였다. 직업군은 프리랜서, 교육직, 대학원생, 서비스직, 공공기관 근무자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에 속한 이들이었고, 나머지는 개인 활동 또는 비정규직 직업 환경에 속해 있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동성 간의 연애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4명은 본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라고 정체화했고, 1명은 ‘양성애’라고 응답하였다. 연인의 성적 지향 또한 동성애 또는 양성애로 확인되었으며, 한 명의 경우 연인이 외국인이었다. 아웃팅 여부에 있어서는 1명이 본인과 연인이 모두 아웃팅 되어 있지 않았으며, 1명은 본인만 아웃팅 상태였다. 또 다른 1명은 일부 주변에만 아웃팅 상태였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아웃팅 여부가 연인과 다르게 나타나는 등 다양성을 보였다.

참여자 전원은 1년 이상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3명은 정확히 1년, 1명은 2년 9개월, 또 다른 1명은 10년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교제 기간은 약 3년 9개월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1명은 현재 연인과 7년째 동거 중인 상태였다. 정신건강 및 과거 이력과 관련하여, 1명은 과거 우울증으로 약 1년간 약물 복용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른 1명은 섭식장애를 경험한 이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심리적 맥락 속에서 동성 간의 연애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아웃팅 여부나 연인의 특성, 관계의 지속 기간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사례	연령	직업군	성적지향	아웃팅 유무	교제기간	비고
1	43	프리랜서	동성애 (연인: 양성애)	○ (연인: ×)	10년	동거 중(7년) 과거 우울증 약 1년 복용
2	28	교육직	동성애 (연인: 동성애)	× (연인: ○)	1년	-
3	35	대학원생	동성애 (연인: 동성애)	○ (연인: ×)	2년 9개월	과거 섭식장애 경험
4	27	서비스직	양성애 (연인: 동성애)	× (연인: ○)	1년	연인: 외국인
5	33	공공기관	동성애 (연인: 동성애)	○ (일부 주변에만) (연인: ×)	1년	20대 범성애로 정체화, 30대 동성애로 재 정체화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25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참여자의 권리와 익명성 보장, 수집된 자료의 사용 범위 등을 명시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참여자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인터뷰 도중이나 이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아울러,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됨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접근성,

편의를 고려하여 Zoom을 주된 플랫폼으로 사용하였다. 참여자가 개인 휴대폰 번호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Zoom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대체하였다. 1차 인터뷰는 최소 60분에서 최대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흐름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에서 20분 내외의 2차 인터뷰가 추가로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미리 구성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진솔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순서를 조정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며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였다. 먼저, 참여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던 시기와 그 당시의 개인적·사회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를 인식한 이후 자신이 보인 감정적 반응과 주변의 반응에 대해 서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초기의 풋사랑이나 첫사랑 경험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구

체적으로 묻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애 경험이 한 번 이상인 경우 각 관계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탐색하였고, 연애 중 겪었던 어려움과 좋았던 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더불어,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경험한 사회적 맥락(예: 아웃팅 여부, 편견 경험), 가족 내 반응, 연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참여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질문이 확장될 수 있도록 면담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뷰 녹음 파일은 모두 인터뷰 후 1주 이내에 전사하여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 접근 중에서도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은 인간이 특정한 삶의 상황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그 경험이 갖는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Husserl, 1948). 특히, 여성 성소수자로서의 사랑 경험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특수한 심리·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경험을 당사자의 시선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어떻게’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현상학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을 선택한 이유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연애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친밀감, 드러냄의 어려움, 관계의 안정성과 위기, 사회적 시선과 차별, 자기수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사랑’이라는 현

상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의 차원을 넘어, 성적 지향성과 사회적 맥락이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체험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연애 경험 연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고유한 의미 세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는 어떤 사랑을 경험하는가?”, “그 사랑은 어떤 정서적·사회적 의미를 갖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은 Giorgi(1985)가 제시한 4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분석에 앞서 연구자는 여성 성소수자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자신이 연구자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무의식적 선입견을 점검하고 괄호 치기(bracket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연구자는 이전에 성소수자 일반 또는 피해 경험 중심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기에, ‘피해자성’ 혹은 ‘소수자 정체성’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녹음된 인터뷰를 전사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참여자들이 서술한 사랑 경험에서 중요한 진술과 맥락을 포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진술에서 의미 있는 단위들을 분리하고, 이들 중 반복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들을 범주화하여 유목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연구자의 언어로 변환하여 각 참여자의 경험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미 단위들을 바탕으로 공통된 본질적 주제들을 도출하고, 참

여자들의 다양한 사랑 경험을 포괄할 수 있는 구조적 의미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이 지닌 본질적 구조를 밝히고, 이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 정서,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정 평가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이한 성격을 가진 세 개의 감사자 그룹을 대상으로 Guba와 Lincoln(1981)의 제안에 따른 감사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여성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 및 교육을 수행하며, 질적 연구 경험과 다양한 연구 리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전문가로부터는 본 연구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 ‘저항’, ‘미래의 불안정성’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대주제를 수정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보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치’라는 표현은 국가 제도나 정당 정치의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일상적 관계 속에서 권력과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달리 말해,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권력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과 사랑이 구성된다는 맥락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치’라는 용어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정서 차원을 넘어, 구조적 억압과 저항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소수자 관련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 가족과의 분리, 정서적 안정과 같은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진행된 다른 감사자 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내용의 삭제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감사자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명의 참여자였다. 해당 참여자는 연구 결과가 자신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맥락이 담겨 있어, 공감하며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이중 구속(double bind)의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개인적 소망도 함께 전달해 주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과 회피’를 ‘젠더규범에 따른 결혼에 대한 압박과 회피’로 수정함으로써, 사회적 억압의 현실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주제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성소수자 여성 두 명이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별 이분법적 기술이 구시대적인 해석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도록, 결과와 논의가 보다 명료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함께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논의 기술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에 대한 분석한 결과, 총 27개의 소주제와 8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대주제에는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

표 2.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의 주제

대주제	소주제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	[이성애적 성행위 없이도 나눌 수 있는 사랑] [불편함 속의 긴장, 편안함 속의 친밀감] [가부장적 젠더 코드를 재현하는 사랑]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	[여성성과 중성성의 대조 속에서 각성된 사랑] [전문성과 주도성에 끌리는 감정의 정치] [정상성과 사회 규범에 대한 전략적 타협]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	[커밍아웃 불균형으로 인한 서운함] [친구로 위장된 애인 관계의 피로감]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커밍아웃의 갈등]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	[젠더 규범에 따른 결혼의 압박과 회피]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 [원가족과 연인사이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결혼·제도적 한계로 인한 이별 예감]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와 제도 밖 존재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체념] [미래에 과제로 남겨진 견딜과 짝어짐]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	[연인을 찾기 위한 위험 감수] [성소수자 사이에서의 차별과 혐오] [커뮤니티 내 성적 대상화와 피로감] [지지적인 환경에서의 안정감]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	[연애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 [연인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안정]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자기 전환] [사랑이 이끈 서로를 향한 신뢰와 담력]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한 시도	[상담, 일기, 거리두기 등을 통한 자기 조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내가 나로 존재해 가는 배움의 여정]

한 시도'가 있다. 이 결과는 젠더 규범을 내사한 사랑의 시작과 유지, 내적 및 관계적 갈등을 비롯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성적 지향성·사회적 낙인·가족 배경·내적 성장의 층위들이 교차하며 구성되는 복합적 현상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받고자 하는 욕망과 동시에 '들키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을 병행하면서, 관계 안에서 상처와 회복, 억압과 자유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표 2와 같다.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

참여자들 가운데는 여성 간의 사랑이 단지 이성애 관계의 대안이 아니라, 남성성과 젠더 규범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그것의 일부를 재현하는 복합적인 감정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한 참여자는 이성애적 성행위 자체를 '전통적인 남성 역할'로 인식하며, 여성 간의 관계는 성행위 없이도 정신적 교감과 애정을 나눌 수 있다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에게 느끼는 감정의 질감 차이를 설명하면서,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편함 속의 긴장과 설렘을,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편안함 속의 친밀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젠더화된 감정 구조를 드러냈다. 반면 일부 참여자는 여성 간 관계 내에서도 이분법적 젠더 수행이 재현되는 사례를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부치(Butch)로 불리는 이들이 이성애적 남성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도적 태도를 취하거나, 상대를 통제

하는 방식의 관계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가부장적 젠더 코드'가 반복되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간 사랑이 단순히 남성성에 대한 탈피나 거부로만 구성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성성과 그 젠더 규범을 전유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도 실천된다는 점에서, 사랑과 젠더 수행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잘 보여준다.

[이성애적 성행위 없이도 나눌 수 있는 사랑]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그걸 추구하고 이러는 데 되게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만나는 거고 하면 굳이 그런 행위를 안 해도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뭔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닐 거라는 식으로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된.. (사례2)

[불편함 속의 긴장, 편안함 속의 친밀감]

저한테 남성은 그 불편함에서 오는 설렘이 좀 큰 것 같고요. 여성분하고는 편안하면서 오는 설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각기 좀 달라요 확실히. (사례4)

[가부장적 젠더 코드를 재현하는 사랑]

약간 그 부치라고 해서, 좀 남자들 중에 왜 내가 키가 크고 난 손도 크고 나는 굉장히 좀 돈도 잘 쓰고 호탕한 사람이라는 거를 과시하는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 역할을 본인이 이제 뒤집어 써 가지고

약간 여자끼리 만나는데도 본인이 남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할 때도 본인이 다 리드를 하고, 나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좀 취해 있는 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소극적이고 소심한 여자는 피해를 입기도 해서 관계 모임을 안 나가게 된 게 있었고 그걸 보는 게 귀찮고 무슨 동물의 왕국인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사례2)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

참여자들의 서사는 여성 간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젠더 코드 속에서 위장하거나 수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보다 ‘여성스러운’ 사람으로서, ‘중성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가진 상대에게 강하게 끌렸던 경험을 회고하며, 그 관계를 통해 스스로 여성에 대한 감정과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여성성과 중성성의 대비는 사랑의 감정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며, 성별 이분법에 대한 위반적 수행이 매력으로 인식된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일터라는 구조화된 공간에서 상대의 전문성과 주도적인 태도에 매력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성에 연결되던 능력, 책임감, 리더십 등의 요소가 여성 간 관계 안에서 감정의 기반으로 재구성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또 다른 참여자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관계나 결혼을 ‘혐오스럽다’고 느끼며,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성소수자와 함께 ‘일반인 코스프레’를 전략적으로 수행하

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 이는 이성애 규범과 정상성에 대한 위장된 수행을 통해 제도적 억압에 대응하려는 현실적 타협이자, 생존의 정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 간 사랑은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며, 정체성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수행한다. 따라서 여성 간 사랑의 정치성은 구조적 억압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심리적 조율과 실천을 통해 삶의 적응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심리·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성과 중성성의 대조 속에서 각성된 사랑]

이제 어플 같은 데 들어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되게 뭐랄까요? 되게 예뻐거든요. 그리고 그냥 약간 저는 좀 여성스러운 타입인데 그 친구는 좀 중성적인 타입이었어요.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긴.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았죠. 나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사례3)

[전문성과 주도성에 끌리는 감정의 정치]

일하는 곳에서 만났고 그분은 이제 ***이고 저는 여기서 이제 ** 업무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신입이었던 저를 많이 좀 알려주기도 했고 여러모로 제가 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일을 잘 하면서 정말 프로답게 하는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사례4)

[정상성과 사회 규범에 대한 전략적 타협]

저는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렇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귀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그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A인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코스프레가 있어서, 이제 일반인 코스프레가 급하다면 우리 둘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사례2)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

참여자들은 여성 간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로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적 소외와 관계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애인이 직장이라는 제도적 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커밍아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은 상대와 달리 프리랜서로서 더 유연한 환경에 있어 아웃팅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서 서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는 관계의 비대칭적 노출이 불러오는 정서적 불균형과 소외의 감정을 보여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애인을 가족에게 친구로 위장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며, ‘친구가 아닌데 친구라고 해야 하는’ 지속적인 역할 연기가 감정적으로 매우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숨겨야만

유지될 수 있는 현실은 심리적 피로감과 자기 부정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어떤 참여자는 사회적 시선과 직업적 위치로 인해 커밍아웃에 제약을 느끼면서도, 애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딜레마 속에서 정체성 억압과 타인 보호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동성 간의 사랑이 여전히 완전히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체감하며, 관계 안에서 드러낼 수 없음의 아픔, 지속적인 위장 수행, 그리고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정체성의 분열과 관계적 소외의 양상을 보여준다.

[아웃팅 불균형으로 인한 서운함]

서운할 때는 많죠. 그럴 때는 좀 많기는 한데 저는 좀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이게 사람 성격마다 다른 건데 또 이제 사회생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 프리랜서라는 직업이니까 근데 친구는 어디 회사에 다니고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선들이 또 다를 거라고 저는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픈하면 더 사랑받는 기분이 들 것 같고 웬지 더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좀 이해는 해요. (사례1)

[친구로 위장된 애인 관계의 피로감]

가족한테 커밍아웃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뭔가 친구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친한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 사귄 때는 저도 가족한테 커밍아웃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때 같이 살았는데 이제 그냥 친한 친구랑 같이 사는구나 약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저는 뭔가 다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이 아니니까 난 친구가 아닌데 계속 친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그렇죠. 네 뭔가 속여서 불편한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례5)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커밍아웃의 갈등]

(아웃팅을 스스로 하거나 퀴어 축제 등을 가는 것 등에 대해) 저는 딱히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제 얘기에 대해서 피력하고 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례4)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

참여자들은 여성 간의 사랑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원가족과의 갈등, 정서적 긴장, 그리고 심리적 분리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어머니가 본인의 성적 지향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성과의 결혼을 유도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성애 규범에 근거한 결혼 압박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 수용 부족과 그로 인한 정서적 소외를 드러낸다. 또 다른 참여자는 결혼이 효도라는 문화적 인식 속에서 부

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가족의 기준과 자신의 관계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내면의 긴장을 보여준다. 또한 한 참여자는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애인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부모와 애인 모두에게 정서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 채 양쪽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했던 자신을 회상하며, 그로 인해 연인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 기대, 애착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겪으며 내적 혼란과 정서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는 사랑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젠더 규범에 따른 결혼의 압박과 회피]

어머니가 눈치를 채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떻게든 남자를 짝어 붙이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지금 거절을 하니까 약간 어렸을 때부터 묘하게 애가 여자애들만 쫓아 다닌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의심을 하는 정도 어머니가.. 그래서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기는 하는데.. (사례2)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

(결혼에 대해) 이제 그 친구는 모르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좀 약간 그런 효도잖아요. 어쨌거나 결혼 같은 것도 효도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례1)

[원가족과 연인 사이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

제가 엄마 아빠랑 분리되는 게 조금 어려웠고 지금도 좀 그렇거든요. 누가 뭘 시키면 잘 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관계 맺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좀 잘해주는 편이고 잘 맞춰주는 편이라서 근데 그때는 이제 애인도 되게 나한테 소중하고 엄마 아빠도 소중하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래서 아마 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례3)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여자들은 여성 간의 사랑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관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동성 간의 관계에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전제된 채 사랑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관계의 허무함과 정서적 허탈감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연인이 결혼을 희망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조건, 이주 과정의 어려움은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와 함께 ‘제도 밖 존재’로서의 한계를 뚜렷이 체감하게 한다. 또한 한 참여자는 과거에는 사랑의 조건으로 결혼을 요구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지금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믿지 않게 되었다며 체념의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감정은 제도적 불평등이 관계의 미래를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랑의 이상과 실천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부 참여자들은 가족, 특히 보수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침묵하고 있으며, 그 침묵을 감당하고 숨어지는 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려는 내적 규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감정적 진실을 유보하거나, 제도 밖에서의 불안정을 견디며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며,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이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섭되고 감내되는 존재론적 투쟁임을 드러낸다.

[결혼·제도적 한계로 인한 이별 예감]

계속 계속 안 좋죠.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혼이라는 딱 그 제도 안에 우리 둘은 부부야 이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끝날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전제에 깔려 있다 보니까 약간 가끔은 허무하고 헛타 올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례1)

[사회적 소속감의 부재와 제도 밖 존재감]

최근에 이제 갈등을 겪게 된 게 그 친구는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전에 그 모임에서도 그 게이들이 했던 말이 남자들은 다른 나

라에 가서도 이주하기가 편한데 여자들은 이제 적응하는 거 돈 버는 거 어찌 됐든 몸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힘든 거 같더라고요. (사례2)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체념]

저는 연애 안 할 거니까 나랑 가족이 될 생각 없으면 애시당초 꺼져라. 제가 막 그랬었는데 자기는 연애,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의 연애 조건이 결혼이라면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축약)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과 제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요즘은 많이 안 들어요. (사례3)

[미래 과제로 남겨진 견딜과 짝어짐]

심지어 저희 할머니는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서명을 받고 다니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런 분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괴롭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제 스스로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냥 짝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례4)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

참여자들은 여성 성소수자로서 커뮤니티에 진입하고 소속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교차적으로 겪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연인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을 만났으며,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를 만나는 데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위험 감수를 구조화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커뮤니티 내에서도 성소수자 간의 위계와 차별이 존재함을 경험하였다. 특히 사례2는 게이 커뮤니티에서 레즈비언에 대해 경제적 힘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그것이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조롱과 대상화로 느껴졌다는 점에서 깊은 불편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부 차별은 커뮤니티 내에서조차 여성 성소수자가 주변화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시사한다. 일부 참여자는 커뮤니티 내 번개 모임이나 만남이 성적 욕망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분위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지 관계나 소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커뮤니티 내 성적 대상화의 문제로 연결되며, 관계적 안정감 형성에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긍정적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 회복과 정체성 수용이 가능했던 사례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커밍아웃 이후 혼란과 자기혐오에 빠질 수 있었지만, 지지적인 커뮤니티와 친구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공간 덕분에 정서적 안정과 자기수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여성 성소수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 형성의 기회, 내부 차별과 대상화, 정체성 수용과 회복이 교차되는 양가적 경험을 하며, 이는 단일한 ‘소속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가 아닌,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으로

서의 커뮤니티의 이중적 얼굴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인을 찾기 위한 위험 감수]

사실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레즈비언 커뮤니티 이런 거 온라인으로 있어서 거기서도 사람을 많이 만났고 근데 물론 항상 리스크는 있어요.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지 않으면 사실 진짜 자만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례5)

[성소수자 사이에서의 차별과 혐오]

자기들끼리 라즈베리네 뭐네 하면서 또 뭐더라..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 건지 이게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 한 번 이제 술자리를 다 같이 가졌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 친구들도 같이 이제 가지게 됐었는데 개네가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레즈비언들이 경제권이나 이런 걸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말을 개네가 한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못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지 약간 그런 어디 이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할 때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 힘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개네가.. (사례2)

[커뮤니티 내 성적대상화와 피로감]

커뮤니티를 들어갔을 때에는 좀 자극적이었어요. 약간 뭔가 성적 욕구를 해소 못해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괜찮은 번개를 한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어떻게든 그냥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사례2)

[지지적인 환경에서의 안정감]

커밍아웃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심각한 혼란 혹은 뭔가 자기혐오에 빠져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마침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런 혼란이나 혹은 어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기를 확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5)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

참여자들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회복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는 변화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한 참여자는 연인을 만나면서 이전의 내성적이고 자기주장이 없던 자신에서 벗어나, 점차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감정이 생겨났다고 회상하였다. 이는 관계 속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전환의 계기를 보여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의 폭발과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지만,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주는 모습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보호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이는 혼란과 불안을 품은 자아가 관계의 일관성과 신뢰를 통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 참여자는 이전에는 연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의 일상을 비워두었지만, 이제는 의존의 불안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시간을 채우며 내면의 독립성을 회복해 가는 자기 전환의 과정을 설명하거나,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자립의 전환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를 통해 자아의 일부를 되찾고, 더욱 자율적인 주체로서는 성장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참여자는 동성 파트너와 함께하는 관계가 단지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같은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서 외부의 위협에 함께 맞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사랑의 감정이 단순한 감성적 결합을 넘어 연대, 신뢰, 담력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 성소수자들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회복하며, 때로는 의존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지탱해 나가며, 사랑을 통해 자아의 재구성과 치유, 독립과 상호 신뢰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애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 만나고 나서부터 되게 약간 저는 제가 그런 마음이 더 들었다.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어렸을 때는 자존감 없었죠 하나도. 엄청 내성적이어서 말 하나도 없고 저의 의견은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의 의견이 제 의견이에요. 집에서도 말없이 조용하고 그

냥 그런 아이였는데.. (사례1)

[연인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안정]

저희 언니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은 참 돌덩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제가 난리법석을 부리고 막 제가 화가 나면 차단해요.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사람 만나겠다고 하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아니야 해 주고 유지하는 것들 그런 게 되게 컸어요. 뭔가 저는 사실 늘 살면서 약간 찢어진 우산 밑에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비가 오면 근데 언니랑 있으면 좀 처마 밑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사례3)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자기 전환]

이제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좀 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셔서 반대하실 때도 많고 이런데 그 친구가 좀 확실한 지침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독립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같이 계획도 세워주고 또 저희의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도 많이 일깨워주는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캥거루처럼 부모님 품에서 못 벗어나는 저를 위해서 좀 따끔하게 일침을 놔줄 때도 있어서 (축약) 지금은 독립을 위해 여러모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사례4)

[사랑이 이끈 서로를 향한 신뢰와 담력]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 파트너랑 어쨌든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서 그냥 어쨌든 같

은 입장에 놓인 처지라서 같은 이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있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기도 하지만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위협이 왔을 때 그런 부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5)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한 시도

참여자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내적 갈등과 감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수용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현실감을 회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동력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 내면의 변화와 감정 조절을 능동적으로 시도한 사례로, 회복적 실천의 중심에 감정 조절이 위치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졌다고 느꼈다며 자기 감정의 언어화를 통한 정서 해소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억압된 감정보다 표현된 감정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한편, 또 다른 참여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너는 그냥 너야”라는 말을 들은 것이 깊은 울림이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특정한 정체성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 없이 ‘존재 자체’로 긍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은 성숙의 과정이자, 더 건강한 관계 맺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상담, 감정표현, 대화와 성

찰 등을 통해 내면의 회복과 자기 수용을 실천하며, 사랑의 지속 가능성과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

[상담, 일기, 거리두기 등을 통한 감정조절]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약간 현실에 접촉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과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근데 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혼자 할 거면 그냥 싫어서 그만둘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과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3)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

그냥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그냥 내 속마음을 얘기함으로써 내 환경을 얘기함으로써 그냥 스트레스 강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례1)

[내가 나로 존재해 가는 성숙]

오랫동안 스스로 생각해 본 것도 있고 또 주변 이제 ** 친구들도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또 토론도 좀 많이 했어요. 토론처럼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 친구가 말해줬던 게 너는 그냥 너야라고 얘기해줬던 게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저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사례4)

논 의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연애 경험이 있는 여성 성소수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27개의 소주제와 8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주제는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한 시도’이다. 이와 같은 주요한 결과들을 선행 연구와 연계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젠더 규범과 정서 경험이 교차하는 사랑’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은 단순히 이성애 관계의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성과 이성애 규범에 대한 저항과 동시에 그것의 일부를 재현하는 복합적인 실천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일부 참여자는 이성애적 성행위를 ‘전통적인 남성 역할’로 인식하며, 여성 간 사랑은 성행위 없이도 정신적 교감과 애정이 가능하다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성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랑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려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Nadal(2013)이 지적한 ‘사회적 소외화(exoticization)’ 즉, 동성애 사랑을 단순히 성적이고 문란한 것으로 환원

해 낮설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과는 구분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외화된 사회적 담론에 맞서 여성 성소수자가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구성하는 주체적 실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맥락을 함께한다(Balsam et al., 2005; Witcomb & Cooper, 2024).

그러나 동시에, 일부 참여자들은 여성 간의 관계 내에서도 ‘부치(butch)’로 불리는 파트너가 남성성과 유사한 주도적 태도를 보이며, 이성애적 젠더 권력 구도를 재현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Butler(1990)의 젠더 수행성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젠더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반복되는 수행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예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여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젠더 코드의 반복적 경험이 지적된 바 있으며 (Hequembourg & Brallier, 2009), 이는 여성 간의 사랑이 반드시 젠더 권력 구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결국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은 남성성과 젠더 규범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교차하고 협상하며 전유하는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천은 젠더 이분법적 규범과 사랑의 정치성을 함께 사유하게 하며, 관계 경험의 복잡성과 그 안의 긴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다.

‘젠더 규범을 위장하거나 수용하며 구성되는 여성 간 사랑의 정치’는 여성 간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규범 속에서 위장하거나 수용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정치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는 타고나는 정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라는 관점(Butler, 1990)과 맞닿아 있다.

한 참여자는 보다 ‘여성스러운’ 자신이 ‘중성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지닌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적 감정과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성별이분법에 대한 위반적 수행이 오히려 정체성의 각성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참여자는 일터라는 구조화된 공간에서 상대의 리더십, 책임감, 전문성 등에 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성’에 연결되던 가치들이 여성 간 관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감정의 기반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사랑이라는 경험이 고정된 정체성 간의 감정 교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젠더 코드의 의미화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일부 참여자는 이성애 규범에 기반한 결혼과 성관계를 ‘혐오스럽다’고 표현하며, 성소수자 간의 관계를 위장하여 ‘일반인 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털어놓았다. 이는 여기동과 이미형(2006)이 소개한 이성애 우월주의라는 개념에서와 같이 ‘일반인’, ‘정상성’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Witcomb와 Cooper(2024) 및 Schmitz와 Tyler(2018), 그리고 남미자 외(2023)가 논의한 상황적 가시화(strategic visibility) 또는 위장된 정체성 수행의 맥락과 유사하며, 이성애 중심적 정상성에 외적으로 순응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억압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실적 생존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은 단지 친밀감의 표현을 넘어, 사회적 젠더 규범을 수용하거나 교란하는 복합적인 수행의 장이며, 사랑의 실천 자체가 정치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이 주목한 성소수자의 정체성 은폐, 낙인 회피, 정체성 협상 등의 논의를 확장하여, 사랑이라는 관계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젠더 정치성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의 외로움과 상처’는 여성 성소수자들의 사랑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적 소외, 자기 억제, 위장된 정체성 수행 등 심리적 고통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커밍아웃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사랑을 감추어야만 하는 구조적 조건이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 참여자는 직장에 소속된 애인이 커밍아웃을 꺼려하는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자신은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노출과 은폐가 비대칭적으로 작동함을 인식하며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꼈다. 이러한 결과는 Glynn 등(2023) 및 Witcomb와 Cooper(2024)가 제시한 정체성 은폐와 정신건강의 어려움 간의 연관성을 넘어, 연인 간 직업적 위치와 커밍아웃의 여부가 관계의 역동성과 정서적 거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파트너를 ‘친구’로 위장해야 하는 경험은 여성 성소수자들이 겪는 세밀한 현실로,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본 연구가 질적 탐구를 통해 드러낸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험은 사랑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감정을 초래하며,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깊은 심리적 피로감과 자기 부정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

다(Huang & Chan, 2022). 정체성의 위장과 관계의 은폐는 단순히 외부의 낙인을 회피하기 위한 수동적 전략이 아니라, Pachankis 등(202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성소수자가 감정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복합적 방어기제로 작용한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이러한 위장과 은폐를 통해 오히려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장애경 외(2023)가 양적 지표(예: 일·가정 균형, 직업 만족 등)를 중심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정의한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대비라기보다는, 연구 방법의 차이에 따라 드러나는 측면이 달라짐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질적 탐구에서 나타난 ‘적응력’은 구조적 억압과 낙인의 맥락 속에서 관계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을 의미하며, 이는 일부 참여자의 경험으로 한정된다.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는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체성 위장과 은폐는 성소수자에게 하나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Balsam et al., 2005) 이를 교차적 관점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Balsam et al., 2005).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경험한 ‘관계를 숨겨야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설’은,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Balsam 등(2005)의 지적에서와 같이, 제도적 영역에서의 배제와 사회적 낙인이 개인의 정체성과 대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궤를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를 숨기는 전략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였고, 이는 Vargas 등(2021)이 소개한 것과 같이 직업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지며, 은폐가 하나의 생존전략이 될 수 밖에 없음(House, 2004)을 보여준다. 결국 관계의 인정 여부는 단지 외부의 평가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지속성과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험을 구조적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원가족과의 갈등과 정서적 긴장’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아니라, 가족주의적 문화와 이성애 규범이 교차하면서 형성된 구조적 긴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결혼과 출산을 요구받거나 효도의 가치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이라는 1차적 애착 집단에 대한 충성심과, 연인 관계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충돌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는 곧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분리가 미비한 경우, 연인 관계에서의 몰입이나 친밀감 형성이 제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원가족의 수용 부족으로 인해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진소연 외, 2013). 그러나 선행 연구가 주로 정체성 형성 과정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가족 압력과 효도 규범이 사랑 관계의 질과 안정성에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한 참여자는 상대 연인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

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연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진술했는데, 이는 기존 양적 연구(장서연 외, 2014)에서 확인된 가족 수용 부족과 우울 수준 간의 상관성을 넘어, 가족 규범이 연애 관계의 정서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에서 나타나는 원가족과의 갈등은 단순히 ‘관계에 반대하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와 이성애 규범이 내면화된 심리적 장치가 사랑 경험을 억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성소수자 사랑을 이해할 때, 개인의 선택 차원을 넘어 문화적 규범과 애착 구조의 교차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제도적 보호의 부재와 사회적 인정 부족으로 인해 지속되는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드러낸 김하영(2018) 및 장미래와 송현주(2021)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하며, Kurdek(2005)이 제시한 동성 커플의 낮은 관계 안정성과도 일맥상통하나, 본 연구는 이를 ‘법적 보호 부재가 관계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정서적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질적 자료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사랑의 미래를 위해 해외 이주를 고려하거나, 아예 가정을 꾸리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Peitzmeier 등(202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적 배제가 단순한 행정적 불편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관계의 지속을 위해 감정적 진실을 유보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은 ‘정체성 억압의

자기 타당화’로도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사랑은 감정의 발현을 넘어, 구조적 억압을 감내하며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해 가는 실천이자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성 성소수자의 관계는 단지 사적인 연애가 아닌, 제도와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 가능성과 정당성을 협상해야 하는 정치적 행위임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는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예: 우울, 불안) 간의 연관성(Glynn et al., 2023)에 초점을 두었으나, 본 연구는 제도적 인정의 부재가 사랑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파트너십의 질적 특성을 규정하는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를 넘어, 관계 지속성과 제도적 배제가 맞물리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따라서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은 사적인 연애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위협받는 불안정한 실존적 조건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성소수자 관계 연구에서 법적·제도적 요인을 심리·사회적 적응 맥락과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경험에서 드러난 양가적 영향’은 여성 성소수자들의 커뮤니티 경험이 단순한 소속의 공간을 넘어, 관계 형성, 위협 감수, 내부 차별, 성적 대상화, 정체성 수용이 교차하는 역동적이고 정치적인 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측면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연인을 찾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된 현실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을 만나되,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와

의 만남에서 오는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었다. 이는 박경은(2021) 및 장서연 외(2014)와 윤아영(2013)이 지적한 여성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비가시성과 음지화된 구조라는 측면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가 되며, 이는 물리적·심리적 안전망의 부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젠더 위계와 권력 불균형을 체감하였다. 예컨대 게이 중심의 모임에서 레즈비언에 대해 “경제적 힘이 부족하다”는 발언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니라, 여성 성소수자를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변화하는 구조적 시선으로 작동했다. 이는 Blustein 등(2019)이 논의한 상호교차성적 차별(intersectionality)과 맞물리며,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이중의 배제를 경험하는 구체적 양상이다. 나아가 Starnski와 Son Hing(2015)의 연구가 보여주듯,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경제적 지위에 놓이기 쉬우며,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Scheer 등(2022)과 장서연 외(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성 성소수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수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내 번개 모임이나 만남이 성적 욕망 중심으로 재편된 분위기에서 피로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Hequembourg와 Brallier(2009)가 보고한 커뮤니티 내부의 성적 대상화와 젠더 기반 소외 현상과도 연결된다. Nadal(2013)의 ‘소외화(exoticization)’ 개념 역시 이러한 맥락을 설명하는데, 성소수자 내부에서도 특정 집단(여성, 레즈비언 등)이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커뮤니티는 긍정적 자원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지지적인 친구 집단

과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공간을 통해 정체성 수용과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Scheer 등(2022)의 양적 연구에서 강조한 사회적 지지의 보호 효과를 확장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는 이를 질적 탐구를 통해 연애 관계의 안정성과 자기 긍정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여성 성소수자에게 커뮤니티는 단일한 ‘안전망’이 아니라, 관계적 가능성과 위협, 정체성 수용과 차별 경험이 교차하는 이중적 공간이다. 이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을 이해할 때, 커뮤니티를 역동적이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관계 안에서 형성된 자아와 회복’은 여성 성소수자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회복하며, 자아를 재구성하고 성장해 나가는 심리적 전환과 치유의 과정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는 연인을 통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자아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관계 속 타인의 인정과 지지가 자기 인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반복된 갈등과 불안 속에서도 파트너의 일관된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보호감을 경험하였고, 이는 신뢰가 혼란스러운 자아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참여자들은 과거의 감정적 의존을 회고하며, 감정적 자율성과 내면의 독립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가 감성적 결합을 넘어 사회적 위협에 함께 맞서는 연대로 이어졌다는 진술은, 사랑이 신뢰와 연대, 담력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장미래와 송현주(2021)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회복

기능, Balsam 등(2005)이 언급한 동성 파트너십 내 상호 돌봄과 정서적 보호 경험과도 연결되며, 사랑을 통한 자아 회복과 관계적 성장의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자기수용과 관계 회복을 향한 시도’는 여성 성소수자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감정의 불안정성이 단지 개인적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 속에서 회복과 자기수용을 향한 심리적 실천임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현실감과 감정조절 능력을 회복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의 동력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내적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 조율의 필요성이 회복적 개입을 자발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Sommantico 외(2021)가 소개한 것과 같이 안정된 애착 유형과 높은 자기 분화 수준은 감정 조절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핵심 임상적 자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고 말하며, 감정의 억압보다 언어화된 감정이 자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드러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정체성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자기 감정의 승인과 표현이 치유적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Rostosky와 Riggle(2017)가 소개한 것과 같이 커플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수용,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상의 역할을 훈련하는 것이 임상현장에서의 중요한 개입의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 참여자는 “너는 그냥 너야”라는 지인의 말을 통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감을 회복하였으며, 이는 정체성의 규범화나 외적 기준을

넘어서 존재 그 자체로의 긍정을 경험한 사례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험은 장미래와 송현주(2021)가 강조한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한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회복적 기능과도 연결되며, 성소수자 내담자들에게는 정체성 수용과 자기 가치감의 강화가 관계 회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및 임상 실천에서는 관계 중심적 맥락에서 자기 조절, 감정 표현, 정체성 수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층적인 회복 모델과 언어적·관계적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성소수자들의 사랑 경험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 국내 연구 흐름을 반영할 때, 본 연구는 질적 탐색을 통해 여성 성소수자들의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사랑을 구성하고, 유지 발전하며 자신을 성숙해 나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여성이자 소수자로서 이중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드러내 줄 수 있었으며, 이들이 위장과 은폐의 전략을 생존의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 줄 수 있었다. 이것은 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시 은밀히 만나거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노출을 증가시키거나, 선행연구에 소개한 것과 같이 여러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Greene et al., 2021; Lewis, 2016; Livingston et al., 2023; 채원정 & 강숙정, 2025) 사회적 비용을 더욱 초래할 수 있음을 경각시킬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이 단순히 개인이나 두 사람의 관계적 양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이며 구조적인 역동이 내재한 정치적 실천임을 드러내 주어 우

리 사회 인식 전환과 임상전문가들에게 개입의 핵심 요소들을 제안할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결과에서도 소개하였던 바와 같이 여성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위장과 은폐의 전략을 상당히 구사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대면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외형 등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점에서 만남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둘째, 여성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 관계 역동에 미친 사랑 경험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의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남성 성소수자의 사랑 경험과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관계 경험의 차이나 성별 고유의 관계 역동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기인한다. 선행 연구에 제시하였던 남성 성소수자와 여성 성소수자의 관계 만족 및 여러 관계 역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Scott et al., 2021; Sommantico et al., 2021)은 본 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 없었던 바, 이것은 향후 연구 관계로 남겨두겠다.

참고문헌

김가영, 김영근 (2024). 성소수자의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지정성별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7(1),

77-116.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8(2), 183-214.

남미자, 김아람, 김경미 (2023).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지정성별(assigned sex) 여성 성소수자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1(2), 59-91.

박경은 (2021). 성인기 성소수자들의 사랑경험을 통한 삶의 적응과정. *발달지원연구*, 10(2), 99-127.

여기동, 이미형 (2006). 한국 남성의 동성에 성 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15(3), 289-298.

여론 속의 여론. (2025). 2025 성소수자인식조사: 성소수자에 대한 나와 우리 사회의 포용 수준. 한국리서치.

이호림, 이혜민, 박주영, 최보경, 김승섭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1-10.

장미래, & 송현주 (2021). 여성 성소수자의 드러내기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25-49.

장애경, 성벼리, 양은주 (2023).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직장 여성의 맥락적 제약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8(3), 329-359.

진소연, 정동욱, 김주원, 박현정 (2013). 여성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발달 과정과 결혼 인식에 대한 내러티브-사례 연구. *문화교육연구*, 2(3), 89-114.

채원정, 강숙정 (2025). 초기 성인기 여성 성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우울이 흡연

- 및 문제 음주에 미치는 영향: 서술적 단면조사연구. *Health & Nursing*, 37(1), 1-12.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 Nadal, K. L. (2013). That's so gay! Microaggressions an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communit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ustein, D. L., Ali, S. R., & Flores, L. Y. (2019). Vocational psychology: Expanding the vision and enhancing the impac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7, 166-221.
- House, C. J. C. (2004). Integrating barriers to Caucasian lesbians' career development and Super's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 246-255.
- Stamarski, C. S., & Son Hing, L. S. (2015). Gender inequalities in the workplac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processes, practices, and decision makers' sexism. *Frontiers in Psychology*, 6, Article 1400.
- Vargas, E. A., Brassel, S. T., Perumalswami, C. R., Johnson, T. R., Jagsi, R., Cortina, L. M., & Settles, I. H. (2021). Incidence and group comparisons of harassment based on gender, LGBTQ+ identity, and race at an academic medical center. *Journal of Women's Health*, 30, 789-798.
- Lewis, R. J., Mason, T. B., Winstead, B. A., Gaskins, M., & Irons, L. B. (2016). Pathways to hazardous drinking among racially and socioeconomically diverse lesbian women: Sexual minority stress, rumination, social isolation, and drinking to cop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 564-581.
- Scheer, J. R., Batchelder, A. W., Wang, K., & Pachankis, J. E. (2022). Mental health, alcohol use, and substance use correlates of sexism in a sample of gender-diverse sexual minority women.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9(2), 222-235.
- Livingston, N. A., Gatsby, E., Shipherd, J. C., & Lynch, K. E. (2023). Causes of alcohol-attributable death and associated years of potential life lost among LGB and non-LGB veteran men and women in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Addictive Behaviors*, 139, 107587.
- Irwin, L. (2007). Homophobia and heterosexism: implications for nursing and nursing practice.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1), 70-76.
- Badgett, M. V., Durso, L. E and Schneebaum, A. (2013). *New patterns of poverty in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community*. L.A.: The William institute.
- Peitzmeier, S., Gardner, I., Weinand, J., Corbet, A., & Acevedo, K. (2020). Health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queer women. *Journal of Women's Health*, 29(3), 326-334.
- Totenhagen, C. J., Randall, A. K., & Lloyd, K. (2018). Stres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same sex couples: The vulnerabilities of internalized homophobia and outness. *Family Relation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67(3), 399-413.
- Sommantico, M., Iorio, I., Lacatena, M., & Parrello, S. (2021). Adult attachment, differentiation of self, and relationship

- satisfaction in lesbians and gay me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43(2), 154-164.
- Kurdek, L. A. (2005). What do we know about gay and lesbian coupl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51-254.
- Rich, A. C. (2003).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1980). *Journal of Women's History*, 15(3), 11-48.
- Rostosky, S. S., & Riggle, E. D. B. (2017). Same-sex couple relationship strengths: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2000-2016).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1), 1-13.
- Hequembourg, A. L., & Brallier, S. A. (2009). An exploration of sexual minority stress across the lines of gender and sexual identity. *Journal of Homosexuality*, 56(3), 273-298.
- Scott, S. B., Garibay, B., & Do, Q. A. (2021). Reasons for relationship dissolution in female same-gender and queer couples.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1(2), 132-140.
- Huang, Y.-T., & Chan, R. C. H. (2022). Effects of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on well-being among sexual minorities: How and when does concealment hu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9(5), 623-636.
- Pachankis, J. E., Jackson, S. D., Fetzner, B. K., Mahon, C. P., & Bränström, R. (2020).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and mental health: A conceptual and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6(10), 831-871.
- Schmitz, R. M., & Tyler, K. A. (2018). Contextual constraints and choices: Strategic identity management among LGBTQ youth. *Journal of LGBT Youth*, 15(2), 1-15.
- Balsam, K. F., Rothblum, E. D., & Beauchaine, T. P. (2005). Victimization Over the Life Span: A Comparison of Lesbian, Gay, Bisexual, and Heterosexual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477-487.
- Glynn, S. A., McLaren, S., & Goldie, P. D. (2023). Sexual orientation concealment, hop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sexual minority women: The moderating role of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omosexuality*, 70(11), 2594-2616.
- Witcomb, G. L., & Cooper, C. (2024). 'Show Us a Kiss!': The everyda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of female lesbian, bisexual, and queer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30(4), 540-560.

1차원고접수 : 2025. 08. 05.

심사통과접수 : 2025. 09. 08.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Sexual Minority Women's Love Experiences

Kyung Eun Park

Se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ove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y wome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individuals currently in same-gender romantic relationships. Using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27 sub-themes and 8 main-themes were derived. Main themes included 'Intersecting Gender Norms and Emotional Experiences in Love', 'the politics of same-gender love shaped by gender norms', 'emotional pain from unrecognized relationships', 'familial conflict', 'relational instability', 'Ambivalent Influences Revealed in Community Experience', 'personal transformation through relationships', and 'efforts toward self-acceptance and healing'. These findings help fill the gap in domestic research on the romantic experiences of sexual minority women and provide context-specific insights into how love and identity are constructed and sustained within sociocultural constraints. The study also discusses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and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women, sexual minorities, love,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